

문화누리카드



정읍단품미인대학 교육생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이달 4일까지 '2016년 정읍단품미인대학' 모집한다. 기술센터는 "지역농업 특화발전이 필요한 품목별 장기자랑 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도 단품미인대학을 운영한다"며 "오는 10일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11월까지 진행될 이번 교육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유기농업과정'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대상의 SNS마케팅 과정, 농산물 가공산업 아카데미 기술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가공창업 과정' 모두 3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모두 70명이다. 접수장소는 기술지원과와 농업인상담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인력개발팀(☎539-62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보건소, 걷기 동아리 운영

부안군 보건소(소장 김달천)이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동네방네 9988 걷기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11개 면지 역 178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혼자서 운동하면 지루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걷기지도자의 독려와 휴대용 노래방기의 음악으로 흥을 돋우며 진행된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특전 포인트 부여, 기초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소금농도검사), 체 성분 분석 및 결과 상담, 걷기운동의 바른 자세 지도, 건강교육(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을 제공해 개인의 건강행태 개선 및 생활습관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병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며 "별 군민 걷기운동 불 조성을 군민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경찰서 공감치안행정 추진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2일 어울마당에서 각 과장 및 계·팀장들이 있는 가운데 정읍지역 단풍관광도시와 걸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 치안성과 거양은 물론 정읍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치안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도시 정읍이미지에 맞게 주민이 공감하는 기능별 정책으로는 정읍지역 치안협의회, 23개 읍·면별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마을별 '우리동네 공감방송'을 지속 추진하여 각 기관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위원회 등 주민참여를 확대 심화 발전시켜 지역별 맞춤형 협력방안을 추진하여 우범지역 범죄 환경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연내 100% 확대 설치하며, 지역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내관에 있는 원뿔촌 등 근린생활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주원 정읍서장은 "30개 추진과제를 각 기능별로 내실 있게 진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마실축제 준비 만전

김종규 군수 윌레회의서 "방문객 60만명 달성 위해 노력하자" 강조

김종규 부안군수(사진)가 "제4회 부안마실축제 60만 명 달성을 통해 '부안마실(扶來彌福·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드린다)'을 성사시키자"고 2일 열린 3월 중 윌레회의에서 '네 번째 맞는 부안마실축제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부안마실축제 60만 명 달성을 위해 부안군민을 성사시키자"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부안마실축제의 오답 노트를 꺼내 전 직원이 공유하고 지금까지 축제 예측노트로 작성해 착실히 준비하자"며 "부안마실축제를 전국 대표축제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또 김 군수는 "올해를 민원 핑퐁 제로화의 해로 선언했다. 업무 핑퐁은 실패할 행정의 동맥경화 같은 것"이라며 "업무 핑퐁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서별 토론회를 실시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군정이 실현

되도록 모두가 뜻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성공실적에서 경험에 농기구를 정비하고 춘분에 울벼를 심는다고 했듯이 3월은 일년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는 부안 정령 600주년을 넘어 새로운 천년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군수는 "소통·공감·동행행정과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 등 행정의 3원칙을 심화시켜 부안마실축제 관광객 60만 명, 인구 6만 명 회복, 나누미군정장학금 100억 원 달성, 2023 세계잡채리 대회 유치라는 울벼를 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에도 때가 있는 듯 군정에도 본연 업무에 열정과 철학을 담고 골든타임을 지켜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부안군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민복을 강조하는 김종규 부안군수



김제시 대표단은 첫날 아사마시 시청, 시아미아케 박물관 등 우호도시인 시아미시를 둘러보고 시장 및 박물관 관장 등과 문화교류를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제시-일본 시야마시 저수지 축조 1400주년 기념식 참가

양 도시 저수지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협력키로

김제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일간 우호도시인 일본 오사카 시야미시에서 개최된 시야미아케(저수지) 축조 1400주년 기념식에 이승복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김제시 대표단은 첫날 시야미시 시청, 시야미아케 박물관, 시야미아케를 방문하여 시야미시 시장 박물관 관장 등과 벽골제와 시야미아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및 양도시

간 문화,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류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은 물체날 시야미아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시야미아케 축조 1400주년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양국 저수지는 고대 동아시아 수리시설의 역사와 유래를 잘 보여주는 인류공공의 문화유산으로서 의미가 대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벽골제와 시야미아케 저수지는 고대 세계적인 저수지의 효시로 벽골제는 백제 비류왕 서기 330년에, 시야미아케는 618년 무렵에 각각 축조됐으며 부영공법과 용도등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양도시는 2012년부터 양국 저수지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신태인읍, 전통시장 살리기 나서

매월 1회 이상 '장날 이용의 날' 정해 운영 계획

신태인읍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읍 관계자는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 및 기관단체들이 전통시장 이용에 솔선수범하기로 하고 기관장 모임인 '수호회'와 신태인시장협의회, 신태인발전협의회, 신태인신민회 등이 주축이 되어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태인시장은 내년 개장 100주년을 맞는 전통시장이다. 정읍시 북부권 5개읍면 주민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월 3일과 8일에 열리는 정기 5일장과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읍은 이달부터 매월 1회 이상 신태인 장날 이용의 날을 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3·8 장날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민들을 신태인시장으로 유도해 시장의 활성화에 공헌하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행사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기관 단체와 인근 5개 읍면기관 총 200여명이 참여하게 될 행사에서는 부호와 고리갈기, 등 친선경기를 갖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선물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기관단체 임직원들은 전통시장에서 점심을 먹은 후 장날에 나갈 예정이다.

읍 관계자는 "12월까지(연10회) 매월 첫째 주 정기 장날(토일,공휴일 제외)을 '3·8장날 만남의 날'로 운영, 신태인시장의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문화누리카드 사업 순항

김제교월동 현재까지 300여명 발급·채증진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에서는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6세 이상(2010.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5만원을 지원하여 공연 및 영화 스포츠 관람과 서점, 사진관 놀이공원, 철도, 고속버스 이용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가족간에는 합산 신청도 가능하다.

작년 사업대상자의 경우, 신분증과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충전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신규 대상자 및 카드 분실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월동에서는 지난 15일 발급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00여 명이 카드를 발급 받거나 기존 수혜자에게 재충전하여 방문 순조로운 사업 시작을 알렸다.

카드발급 및 충전은 금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카드를 발급 받아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지원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www.문화누리카드.kr)에서도 신청 가능하게 되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규 저소득층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소방서, 관내 기자단 대상 응급처치교육

부안소방서(서장 김원술)는 2일 소방서 홍보체험관에서 관내 기자단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하립리해법 등 응급처치교육을 가졌다.

부안군청 출입기자단 13명이 참여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및 기도폐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요령 등을 습득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송기지는 "언제 발생

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익혀둬야 할 교육을 소방서 전문교관에게 배우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원술 서장은 "응급처치교육의 광범위한 보급을 하려고 우선 관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더욱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최의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거되지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H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호 | 375ml 2ea/13%

TEL : 063-594-9960
www.gangsanwine.com